

중국청도방직염색공업단지 投資 설명회

대진대학교 대진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사업전략구상



대진대학교와 포천상공회의소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중국청도방직염색공업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진대학교(총장 홍기형)와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중국청도방직염색공업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홍기형 대진대학교 총장과 방주석 포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기업체 대표 20여명과 중국 교수 우관초 부주석 등 6명의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희 대

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진대 홍기형 총장은 "교수 우관초 부주석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며 중국 최초의 한국전용 염색공장 건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진대학교는 중국전용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경기북부대진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해 생명공학, 정보통신, 관광

사업등 각 분야 200여개 업체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청도방직염색공업단지와의 긴밀한 교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관초 부주석은 "지난 2002년 12월 청도방직염색공업단지 168만평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한국 섬유업체 발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참석하신 포천 기업체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청도방직염색공업단지 투자 여건에 대한 설명회에서 중국측 관계자는 "생태, 과학기술, 환경보호, 효익을 주지로 하고 고 기층에서 기획, 고 표준으로 건설, 고 품질의 투자 유치, 고 수준 서비스 제공이란 원칙에 따르고 신용과 효율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환경을 부단히 우화시키고 건전화하여 특색이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설립하고 3년내에 이 공업단지를 양자강이북 나아가서 전국에서 제1위의 방직염색가공 전문 공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 개방 창문의 요람지이기도 하고 방직경제를 진흥하는 인생의 무대이기도 하며 또한 인생포부를 품은 투자자들의

포천을 보여주며, 창업하는 보람찬 육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업단지"라고 밝히며 투자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응답시간에는 (주)초이스 T&D 구상상 대표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중국진출에는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상품의 열등한 디자인에 있어 한국 고유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관계자는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진대 홍기형 총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오늘 참석하신 각 기업체 대표이사님들과 함께 청도에 함께 다녀오자"고 제안하기도 해 대진대학교의 중국 청도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투자설명회는 대진대학교가 중국전문 대학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청도진출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테크노파크사업 2005년부터 본격시행

전통 가구산업 특화전략사업도 추진

포천시가 지난해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은 경기도와 포천시, 대진대학교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진대학교내 3만여 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177억 원이 투입돼 향후 10년 동안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포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이미 금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얻었고, 9월 2일에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시는 또 업무지원을 위해 전담 직원을 "대진대학교 테크노파크 사업팀"에 파견했으며, 올해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매년 각 10억 원씩 5년 동안 총 1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은 ▶물류시대를 대비해 경기북부 지역을 주도하는 지역혁신 거점 마련 ▶기술개발과 연계한 각종 지역특화 사업 발굴,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는, 경기도가 설립 추진중인 "경기북부 가구연구센터"를 관내에 유치하고자, 센터건립 계획을 대진 테크노파크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 8월 "포천시 가구산업 특화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포천시는, 오는 12월 7일 관련 전문가와 전문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가구산업에 대한 중장기 특화전략 방안 용역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포천시 전통 목재·가구산업에 대한 친환경적 특화전략 사업화 방안" 등 가구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포천시의 전통 목재·가구산업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감도

경 제 단 신

경기농협, 경기농업 포럼 · 신영농기술교육 실시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박재근)는 25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WTO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경기농업의 발전 방향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농업 포럼 및 21세기 신식량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농협이 지역자율특색사업으로 선정해 26일까지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을 비롯한 여성농업인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농업 포럼에서는 김덕영 농정국장의 WTO 시장개방화에 따른 경기농업의 발전방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와 친환경농산물생산부, 농촌관광농업부, 농산물유통부 및 자유주제로 진행됐다. '21C 신식량농기술교육'은 한국농업협회 박영수 부회장의 각 품목분야별 선진농업인 노하우 등의 교육과 26일 포천의 도리도한 방아마을과 파주의 장단마을 등 선진농업 현장교육으로 진행됐다. 정영복기자 jpk61@paran.com

원천징수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등의 작성요령 및 연말정산 사례 등을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면 오는 12월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접수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상공회의소(031-535-0072~3)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파주지소 29일 개소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파주지소가 29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에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시와 연천군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와 경기동부(구리, 남양주시, 가평군), 고양, 포천상공회의소 체제를 갖추게 됐다. 파주지소는 앞으로 파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워드 프로젝트, 전자회계, 속기 등 정부 위탁 검정 업무와 원산지 증명 등 제 증명을 발급하는 무역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체의 각종 애로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하고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힘을 보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031-957-1531~2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오는 12월7일 오후2시부터 포천역 성화관 2층 강당에서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총무와 경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04년 연말정산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말정산업무중 2003년도와 달라진 개정사항과 연말정산의 개요 및 각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농어촌특별세의

탐 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엔트산업

고객중심의 기능성 제품 생산에 주력



대표 최선일

안락한 제품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 선두주자 엔트산업(포천시 가산면 갈무리 47-4, 대표: 최선일). 엔트산업은 1985년 창립 이래 국내포장산업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며 세련되면서도 다양한 각종 소량백, 비닐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엔트산업은 "열심히 일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꾸준한 생산설비 투자와 고객의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품질 있게 유지하기 위해 전 임직원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품격 제품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엔트산업은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출고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납품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약 3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에 생산제품의 8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랜드 백화점, 페리카나 등으로 공급하며 제품의 질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엔트산업은 1천200여평의 대지위에 새로운 건물 증축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며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생산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고객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고품질 생산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찾는 고객들에게 고부가가치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며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외환위기에 비해 더욱더 심각한 국내경기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엔트산업은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제품의 마진폭이 턱없이 적어 혹독한 이윤고를 겪고 있다"며 "우리기업이 경쟁력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최선을 다하며

우수한 제품생산으로 불황을 타개하겠다"

최첨단 생산시설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고객이 주문하는 제품에서 생산가공,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 정확한 시스템으로 우수한 품질,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중심의 경영을 자랑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사용범위가 광범위한 포장재가 이제는 단순한 포장용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와 고객의 품위까지 높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고객 중심의 기능성 제품생산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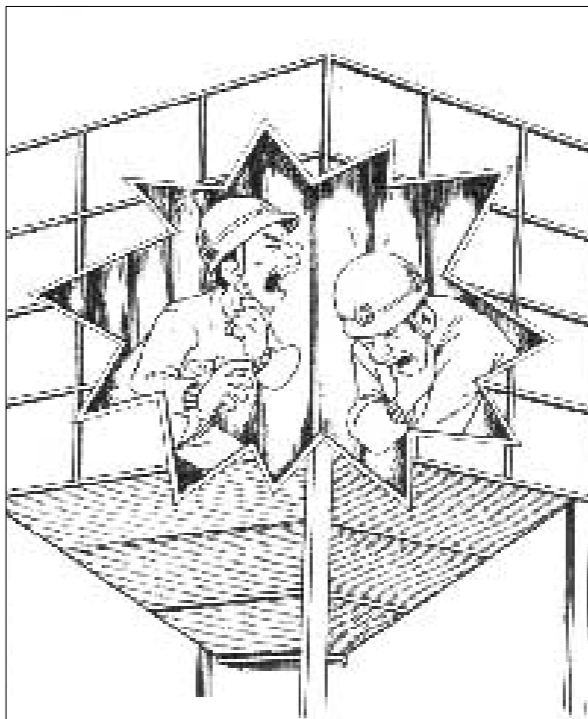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원 목적인 제품의 안전, 운반시 보호, 고기능성 제품생산에 전 임직원들이 일치 단결해 우수한 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위기를 모면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획을 시사했다. 이러한 엔트산업의 장인정신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대해 본다. 문의 031) 535-8113 정영복기자 jpk61@paran.com



안락한 제품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 선두주자 엔트산업.

산업안전사고 예방

집진기 내부 작업중 질식



재해발생 상황도

0000년 2월 00제철소 탈유설비 집진기에서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배출 펌퍼의 패킹을 교환하기 위한 예비작업을 하던 중 유해물질(SO2, CO)중독 및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산소결핍 및 유해물질 중독과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작업시작전 환기를 시키고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 및 산소결핍작업에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 하였다. 둘째, 산소결핍 등의 재해위험성이 있는 작업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시작전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해야 한다. 둘째, 작업시작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셋째, 감시인 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호흡용 보호구 및 피난기구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분만 생존해 계신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양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주므로 착오 없기 바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국제정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